



1. 헌판식 후 기념촬영
2. 첫 이사회 모습
3. 개소식에서 내빈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4. 개소식 모습

세계직지 문화협회 공식출범

직지세계화 추진을 위한 민간차원의 국제적 기구인 '세계직지문화협회' (회장 이수성 전 국무총리)가 구랍 9일 오전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2동 첨단문화산업단지 내(옛 연초제조창)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수성 회장을 비롯, 정종택 충청대학 학장,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이상훈 충북지역개발 대표, 서동욱 충북인쇄조합 이사장, 정재순 청주MBC 사장, 유기영 청주시의회 의장 등 내빈과 지역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소식에 앞서 협회는 첫 이사회를 열고 2006년도 사업계획안과 정관개정안, 예산안 등을 확정했다.

이날 홍우동 동 협회 이사(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는 2006년도 사업계획을 통해 오는 9월 서울시청 앞에서 인쇄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인쇄전시회가 열리는 만큼 직지를 널리 알리고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해 직지와 관련된 고인쇄문화를 함께 전시하자고 제안,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이에 따라 세계직지문화협회는 대한인쇄문화협회 등과 협의해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행사를 직지축제와 연계해 추진키로 했다. 또 동 협회 이사인 손인석 청주북지구JC

우정사업본부 '직지' 우표 발행

우정사업본부는 2001년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된 '직지심체요절'과 '송정원일기'를 소재로 한 우표 2종을 구립



9일 발행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리나라 문화유적이 유네스코(UNESCO)에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유산등록 특별우표를 1997년부터 발행해 오고 있으며 이번이 9번째다. 우표액면가는 310원으로 발행일부터 전국우체국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발행량은 각 85만장씩 170만장이다. 우표 전지(발장 10장)는 시틀릿(전지와 시트의 혼합형) 형태로 구성돼 있으며 평판에 요판 인쇄방식이 추가돼 있다.

청주시 직지포럼 열려

직지포럼이 주최한 '직지세계화 추진사업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가 구립 9일 오후2시 청주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강태재 직지포럼 대표는 "직지세계화 사업추진은 커다란 성과를 거양했지만 사업의 추진방식이나 내용면에서 적잖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사업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을 도출해내 대안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5



6

5. 개소식에 참석한 내빈들 기념촬영
6. 첫 이사회후 기념촬영
7. 이수성 회장이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7

회장이 올해 세계JC 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는데 이때도 직지를 홍보하는 코너를 마련하자고 제안해 역시 통과됐다. 이날 개소식에서 이수성 회장은 축사를 통해 "직지세계화 추진에 노력해온 청주시민의 노고를 치하하며, 세계직지문화협회는 앞으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해 직지세계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직지문화협회는 2004년 6월15일 직지세계화 선포식에서 직지세계화 사업의 후원조직 결성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따라 2005년 3월에 창립됐고, 7월 외교통상부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와 8월 청주지방법원의 법원등기 및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등 모든 법적절차를 마친 상태다. 현재 25명의 이사와 15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협회는 총 1억6천여만원의 기금이 마련됐고, 2005년 9월 캐나다 해외지부장(김재혁·직지홍보대

사)을 위촉했다.

협회의 조직은 이사회와 사무국 그리고 직지전략연구원, 포럼, 특별위원회 등의 부설기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는 공무원 2명과 재단직원 1명 등 총 3명이 사무국에서 일하고 있다. 앞으로 협회는 100억원의 기금을 확보해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직지의 가치를 연구하는 사업과 유네스코 직지상을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시상제도로 육성하는 사업, 국내의 직지홍보 전시사업을 추진, 국민적 관심사인 직지찾기 운동, 남북한 공동 문화교류사업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 중장기적으로는 전략연구소를 설립, 운영해 직지세계화의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각국의 한인회를 중심으로 협회 해외지부를 설치, 교포와 해당 외국인까지 회원으로 확보하는 등 직지세계화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